

추석 코앞인데...양동시장은 공사중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앞 도로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로 인해 매우 혼잡하다. 이 공사는 추석 대목인 다음주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양동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경역로 비가림 설치·간판 정비 등 완공 일자 한달 넘겨 상인들 “대목 놓친다” 민원 쇄도...서구청 “피해 최소화”

연중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동시장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8월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 양동시장 정비 공사가 추석을 불과 10일 남겨둔 현재까지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양동시장의 경우 명절을 1~2주 남겨두고 거래가 폭증하는데 시장이 공사판이라 대목 분위기가 나지 않고 찾는 손님도 예년보다 대목 줄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16일 광주시 서구와 양동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양동(경역로)시장 정비 공사가 애초 완공하기로 한 8월 20일을 훌쩍 넘

긴 이날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양동시장 경역로 구간(300m)에 아케이드(비가림시설)를 설치하고 간판, 전기 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4월 20일 착공에 들어갔다. 서구는 점포별로 설치한 비가림 시설이 노후해 미관을 해치고 우천시 이용객 통행 및 상인 영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국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아 총 17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추진했다. 양동(경역로)시장 이용객에게 최적의 구매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공사구

간에 터잡은 73개의 점포 상인과 50여명의 노점상인들도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을 추석에는 비 맞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지난 봄에 공사에 들어간 정비 공사가 완공일자를 한 달여 넘긴 이날까지도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상인들이 점차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목을 앞둔 시기에 크레인을 동원한 공사는 물론 곳곳에 도로 포장공사, 전기공사, 간판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시장에 활기가 없기 때문이다. 간혹 소비자들이 시장을 찾더라도 중장비 소리와 흙시 모를 부상 위험성 때문에 상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상인들 설명이다. 일부 상인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공사 진척이 없자 서구청과 광주시청에 공사 완공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감자를 파는 한 상인은 “도로에 손님이 차를 대야하는데 공사 인부들이 종일 차를 주차하고, 공사 소리가 위협스럽고 커서 매출이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30대 상인도 “8월에 끝나야 할 공사가 왜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알 수가 없다. 상인들을 위한 공사가 되려 상인들의 대목 장사를 망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일부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 골목 포장공사와 크레인을 동원한 아케이드 공사는 늦어도 내주 초까지 마무리 짓고, 전기공사와 간판 정비 공사의 경우 추석 명절 뒤 속행해 상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취업 잘되는 학과 강세...광주대 간호학과 9.19 대 1

광주·전남 수시모집 분석

15일 마감한 '2016학년도 광주·전남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은 취업률 높은 학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게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왕이면 취업하는데 유리한 학과를>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 등에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치솟았다. 호남대 간호학과는 지원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일반전형의 경우 30명 모집에 685명이 지원,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명을 수시에서 선발하는 물리치료학과도 347명이 원서를 내 21.7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취업률은 각각 71.9%, 82.4%다. 광주대도 취업률이 92.3%로 집계된 간호학과 경쟁률이 9.19대 1로 가장 높았다. 79.3%의 취업률을 기록중인 유아교육과도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도 학생 한 명이 1개 원서만 쓸 수 있도록 복수 지원을 제한했지만 군사학교(여학생) 15.3대 1, 간호학과 10.7대 1, 물리치료학과 9.5대 1 등 취업에 도움을 주는 학과에 지원자가 몰렸다. 송원대 광주전남학부장협의회(국제고 진학부장)는

“취업하는데 유리한 학과를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의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방법 다양화, 평균 경쟁률 상승> =전남대는 2517명 모집에 1만8538명이 지원해 7.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와 달리, 내신 성적 위주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과 외 활동에 비중을 두는 ‘학생부 종합 전형’간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서 수험생이 몰렸다는 게 장광재 송덕고 진학부장 등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내신 성적에 맞는 학과를 찾아 ‘안정’ 지원하는 한편, 비

2015 Muan Redclay Tidalflat Festival

2015 무안 황토갯벌축제

2015. 10. 2(금) ▶ 10. 4(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무안생태갯벌센터 일원

‘황토갯벌 1m³의 가치’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해질 18:38
달출 09:32 달몰 20:49

푸른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7/27	보성	맑음	14/27
목포	맑음	17/26	순천	맑음	17/28
여수	맑음	19/25	영광	맑음	15/27
나주	맑음	15/28	진도	맑음	15/26
완도	맑음	17/27	전주	맑음	16/26
구례	맑음	15/28	군산	맑음	16/27
강진	맑음	14/26	남원	맑음	14/26
해남	맑음	14/27	홍산도	맑음	19/23
장성	맑음	14/28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남해	남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남바다(동)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남바다(서)	북동~동	1.5~2.5	북동~동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4:16	09:26	16:41	21:45
여수	밀물		썰물	
	11:04	04:40	23:04	17:05

주간 날씨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24(목)
☀	☀	☀	☀	☀	☀	☀
16/28	17/27	16/27	15/27	16/27	16/26	16/26

생활지수

☕	주의
🍲	식중독
🚲	10
🏃	운동
👕	20
👗	빨래

중증 외상환자, 9~11월 집중 발생

전남대병원 분석...5년새 30% 증가·교통사고 ‘최다’

다발성 골절, 다량 출혈 등 치명적인 중증 외상환자 대다수가 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발표한 중증 외상환자 분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증 외상환자 2528명 가운데 717명(28.3%)이 9~11월 병원을 찾았다. 단풍 행락객이 많은 10월이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217명, 11월 227명이었다. 외상 원인은 차량 교통사고 538명(21.3%), 추락 475명(18.8%), 보행자 사고 430명(17.0%), 오토바이 사고 334

전남 10개 군 소방서 없다

설치비용 전국 최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개 기초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소방서 설치 비용이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는 40곳이며, 이 중 24%인 10곳이 전남의 군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흥·장성·완도 등 3개 군은 현재 설치 추진 중이며, 곡성·구례·장흥·무안·함평·진도·신안 등 7개 군은 설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